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洙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鄭龍卜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526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자]

The Che-dai Shinmoon

1995년 5월 17일 수요일

1

D.Easton교수등 강연 '북미사회과학 전망' 주제

동아시아연구소(소장 고남욱 경제학과교수)에서는 지난 5월16일 경영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최근 북미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개교 43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후기 현대주의의 미래=D. Easton교수(미국 시카고대학 정치학교수) △'나프타(NAFTA)의 기능과 전망'=Steve교수(캐나다 사이몬 후레이저대학 경제학 교수)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사진)

한편 이번주 초청된 두 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D. Easton교수=1917년생. 1947년 정치학박사학위 취득. 1968년 미국정치학회회장. 현재 시카고대학 석좌교수. 미국 학술원 부회장.



이승희교수 강연

'침출수에 의한...' 주제

화학공학과(학과장 현영진 부교수)에서는 지난 4일 공과대 A동 7122강의실에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방지 방안 소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승희(경기대학교 환경공학부)교수는 강연을 통해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를 통한 제주도지하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강연했다.

J.Neggers교수 강연

'미국의 수학...' 주제

수학교육과(학과장 김도현 부교수)에서는 오는 5월22일 오후2시 사범대 세미나실에서 '미국의 수학 및 수학교육의 동향'이란 주제로 Joseph Neggers(Alabama대학교)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현재 미국의 수학 및 수학교육의 동향을 미국인 교수로부터 직접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넓히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개교43주년기념 제31회 청년아라 대동놀이' 24일 개막

'민족화해·평화정착' 등 기치 내걸어 연합공개강좌·벽화그리기등 다양한 행사개최

민족화해 평화정착 민족통일 민족복지국가건설사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펼쳐지는 '개교 43주년 기념 제31회 청년아라 대동놀이'가 총학생회(회장 송창운 행정 4) 주최로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라대·야외음악당 등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동놀이는 대학문화를 총화하는 행사로 재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닌 졸업생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제주도민에게는 가족끼리 손을 잡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이끌기 위해 △24일 '제대인의 날' △25일 '통일대학' △26일 '열린대학' △27일 '도민대학' 등으로 설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첫날인 24일에는 전야제 행사로써 낮 12시에 한라대에서 문예일꾼, 성화봉송주자, 행사를 주관하는 학우 등이 참가하는 '대동제 지킴이의 결의대회'를 갖고 대동제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어서 삼성혈과 탐동에서 길트기 및 성화봉송을 한다. 6시30분부터는 야외음악당에서 총학생회장의 아라축전 선포를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민중의례 △총학생회장 인사 △제대인의 날 행사(총동창회와 한마당) △격려사(고장권 총장) △축사(총동창회장) 순으로, 제2부에서는 △제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 △락 그룹 '천지인' 초청공연 △학내 노래패 공연 △'단학'무술시범 △독무 캠프파이어 △대동환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25일에는 오전 11시부터 학원대

청소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4동 1층 세미나실에서 여행사 국제부과장인 채성택(축산학과 83학번)등문이 강사로 참여해 동남아 코스를 중심으로 배낭여행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강연하는 '배낭여행 설명회'가 있으며, 오후 8시 30분에는 한라대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한 야외영화제가 펼쳐진다.

26일 오후 4시부터 축제기간 동안 찍은 사진들을 26일 오전 12시까지 접수하여 한라대에서 '아라축전 스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27일은 한라대에서 12시부터 개교 43주년 대동제 폐막식을 끝으로 대동놀이를 폐막한다.

한편 24일부터 26일까지 한라대에서 벽화그리기가 마련되고, 25일부터 26일까지는 길거리 농구대회가 체육관에서 있게 된다.

아라대동놀이 기간에는 각 동아리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연다.

한편 이번 대동놀이를 준비하는 총학생회 문화기획국장 김경(농경 3)학우는 "대부분의 학우들이 대동제라고 하면 전야제만을 축제의 전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동제 기간에는 전야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기간을 전 아라인들이 하나가 되는 장을 만들어 많은 학우들의 참여하는 대동제가 되도록 사전에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모두 60개학과중 20%정도의 학과만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나머지 학과는 별

다른 행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리주최 행사를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한, 총학생회에서는 농촌봉

사활동 준비관계로 축제기간 동안 '복한 바로알기' 전시전만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 아라대동제 주요행사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시간	주최
24일	대동제 지킴이 결의대회	한라대 12시	총학생회
	벽화 그리기	한라대	"
	글 전	(~26일) 4232강의실	신세대
	서예전시회	(~26일) 4236강의실	한문회
	단학공개강연	(~25일) 4동 3층 세미나실	한문회 단학동아리
	서적전시회	(~25일) 4231강의실	한국대학생선교회
	음악다실	(~25일) 4133, 4128강의실	J·U·C·C
	아라타구제전	체육관	타구동아리
	차시음회	(~25일) 4134강의실	다림회
	연합공개강좌	(~26일) 4동 2층 세미나실	TIME, ECT, C·E·F
25일	서적전시회	(~26일) 4127강의실	TIME
	아라사극	법정대 중강당	칼리오페
	공개강좌	(~25일) 한라대	HAM
	택견시범	야외박물관	택견전회
	백두관 2층 전시실	칼그림대-거목대	
	연극 '불 켜주세요'	법정대 중강당	극예술연구회
	주요 관련 심포지엄 및	법정대 중강당	농화학과
	수류 강연 콘테스트	법정대 중강당	축산학과
	우유마시기 대회	민중광장	정보공학과
	캐리비안 및 풋볼	민중광장	아카데미
26일	가리기 발표회	(~26일) 4225강의실	아카데미
	포크댄스의 향연	한라대 12시	직접자
	배낭여행 설명회	4동 1층 세미나실 오후2시	총학생회
	그림전시회	(~31일) 백두관 2층 전시실	한문회
	관 곳	한라대	농과대
	아외영화제	한라대 오후8시20분	총학생회
	길거리농구대회(~26일)	체육관	총학생회
	아라가요제	탐동면민중공원 오후6시30분	CEBS
	중국어화제	백두관 시청각실	중어중문학과
	아라음악제	법정대 중강당	음악학과
27일	대동제사전콘테스트	한라대 오후4시	총학생회
	제14회 아라기왕전	백두관 2층 시청각실	기우회
	English Performance Contest	법정대 중강당	영어영문학과
28일	개교43주년기념식	법정대중강당 오전10시	총무과
	대동제폐막식	한라대	총학생회

다.

신청은 우리대학 공과대 식품공학과 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제주지역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인 강영주 교수에게 하면된다.

한편 오는 4월21·22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시 오리엔탈호텔에서 94년도 지정 40개 대학 지역 컨소시엄 관계자 및 각 시도, 지방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운영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술개발사업참가기업 등 모집 산학연 컨소시엄서 6월10일까지

우리대학교 산·학·연 컨소시엄에서는 95년 9월1일부터 96년 8월31일까지 3차년도 기술개발 사업진행에 따른 참가 중소기업 및 기업담당자문교수를 오는 6월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통상산업부 평가 후 지원이

확정될 경우 3차년도 사업이 계속될 예정인데, 이번 모집은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정보(프로그램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93년 9월1일부터 94년 8월31일까지 진행된 1차년도 기술개발 사업에는 전국적으로 19개 지방소재 대학이, 94년 9월1일부터 95년 8

월1일까지 진행된 2차년도 사업에는 전국 40개 대학이 주관이 되어 중소기업현장 예로기술 타개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업체 및 참여교수는 컨소시엄 본부 및 관리기관 협의하에 기술개발 필요성과 가능성 및 업체 수용능력에 기준하여 선정하게 된

국제학술교류부 신설 유보

"행정기구축소 통·폐합 취지 등에 위배"

평의위원회(의장 김원일 사회교육과교수)는 지난 4월15일 열린 회의에서 기획연구실 산하에 신설 예정이었던 국제학술교류부신설안을 신설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연구실(실장 신재철 사회학과교수)에서 마련한 국제학술교류부 신설안은 지난 3월7일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날 평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인데, 평의위원회에서는 ▲대학은 학과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뚜렷한 명

분없이 본부 조직을 늘릴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도 행정실 통합 등 대학기구 축소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러한 방침에도 어긋난다 ▲기존 부서(연구지원담당관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신설하는 다른 기구가 담당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학술교류부 신설을 유보시켰다.

한편, 평의위원회에서는 기획연구실에 신설안을 수정·보완해서 재상정하도록 요구했다.

지역협력장려연구센터 개소

농축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등 집중연구

지역협력장려연구센터(소장 유장걸 농화학과 교수) 개소식이 지난 4월25일 농과대 4311 강의실에서 열렸다.

고장권 총장, 김문락 제주도지사, 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산업계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은 △경과보고 △연구센터지정서 및 소장임명장 수여 △현관식 △개소 기념학술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3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센터 지정사업계획에 따라 지역협력장려연구센터로 지정된 '제주 농

축수산 생산기공연구센터'는 앞으로 3년간 제주지역 농축수산물부문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방안 모색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고지

지난 5월10일자(525호) 신문의 1면 중앙도서에 관련 기사에서 관광한천영 행정학과 교수를 한창영으로 바로 잡습니다.

社 告

제15회 백록문학상 현상공모

- 분 야
 - 시 : 5편 이상
 - 단편소설 : 70대 내외
 - 문학평론 : 50대 내외
- 시 상
 - 시 : 당선작 1편 40만원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50만원
 - 문학평론 : 당선작 1편 50만원
- 응모마감 : 1995년 5월 20일
- 제 출 처 :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 편집국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문학상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 응모자격 : 우리 대학교 재학생
- 당선작발표 : 『제대신문』개교기념 특집호에 발표
-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54-2278, 2279)

제대신문사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現代



"20년전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끌었지만
오늘은 제가 어머니의 손을 이끂니다."



95년 현대그룹 신입사원
이승조 사원과 어머니

입학식이 아닌 입사식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0년전 엄마의 큰 걸음을 따라 들어갔던
국민학교 입학식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날.
現代建設 신입사원 입사식-
1백74명의 장성한 아들, 딸들이 들뜬 모습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입사식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부모님은
내미는 자식의 손에 대견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생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약속하는 자리-
부모님을 모시고 새 각오를 다집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기업-現代
現代는 가족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신입사원을 맞이합니다.
가족이 쏟은 애정과 관심을 대환하겠습니다.
그들을 길러준 자랑스러운 부모님께 약속합니다.



社說

대학과 비판속의 스승상

— ‘스승의 날’에 생각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라는 학생들의 합창소리 틈새로, 스승의 날 아침 뉴스는 교수들의 반대 때문에 제주대학교에서는 강의평가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학이란 마당은 고도의 정신적 가치와 이념을 계발하고 학리(學理)를 생산함에 있어서 가르침과 배움의 학문공동체일 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인격형성 및 인간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마당이라는 데서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고 있다.

대학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이타적이며 공익(公益)에 기여하고 불권부당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인간적 교류마당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인들은 공부 잘하는 소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도 역시 중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은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서도, 들어온 학생은 어떠한 학생이든 관계없이 학생 하나하나를 소외시킴이 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적 교류를 이뤄나가야 한다.

대학교육 개혁에 앞서 정말로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제도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대화의 마당이 없고, 종강한 다음에는 인사를 나누지도 않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이다.

지식 위주의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교육에서 대화없이 침묵만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설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득당하지도 않는다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뜻한다.

이를 허물기 위해서 대학에는 비판적인 사고(思考)정신이 널리 수용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일반 사회와 달리, 학문은 비판 위에서 발전되는 것이므로 대학에서의 비판정신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인은 비판을 통하여 단순한 경험에 집착하거나 편견이나 독단에 빠지지 않고 참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판을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교수·학습 및 연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 다른 기관으로부터 가져지는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은 비판과 자기반성이 부담없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대학인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복돋아 주면서 존경하는 관계 속에서만이 대학은 인격도야와 학문탐구라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볼 때, 우리대학은 강의평가제를 발전적 측면에서 머지않아 수용하리라고 예상된다.

정작 우려될수록 높아만지는 대학의 스승상은 멀리서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도 변함없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발전 앞당기자!

•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 연락처

(064) 55-6201, 55-7202(이시장, 총장)
55-8561(상임이사, 기획연구실장)
54-2140~2(재단사무실, 기획담당관실)
FAX: 0645-55-8562

□ ‘최근 동아시아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특강을 듣고

영어실력 모자람 절실히 체함

국제적 감각 익히는 데도 도움돼

5월 16일 오후 3시 경상대 세미나 실에서는 좋은 강연이 있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로 불리는 D. Easton 교수와 그의 아들인 S. Easton 교수의 명강이 두시간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Easton 교수는 그의 저서에 바탕을 이루는 ‘System(체계)’이론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그의 아들은 NAFTA와 관련한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에 걸친 자유무역의 영향 등에 관한 강연을 펼쳤다.

먼저 있었던 System 이론은 내전공 분야도 아니었고, 이론도 난해한 관계로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생소했던 이론에 대하여 접할 기회를 가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 그 뒤를 이은 강연은 다소 많이 접했었고 내가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흥미 있게 들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그의 강연 내용은 대략 이렇다. 자유 무역은 여러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tread creation’(무역창출)이고, 둘째가 무역 전환 효과이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소극자가 자유 무역을 할 경우에는 독립성의 상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미국에 종속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문화의 독립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역 협정 시에 소극가는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유 무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자유 무역이 심화될 경우에는 살아남은 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학습 효과의 증대로 최고 9%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시 유명 인사답게 강연의 솜씨가 돋보였고 중간 중간에 우스운 이야기로 관심을 즐겁게 하였다.

내가 강연을 들으면서 빠져들게 느낀 점은 세계적 언어인 영어에 관한 것이었다. 평소에도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왔고, 많은 관심을 보여 왔지만 나의 이러한 노력은 아주 보잘것 없었다는 점이다. 강연에 참석한 교수들은 강연이 끝난 후에 그 교수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열의를 보였고 학생인 나는 그러한 모습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나도 짧은 영어 실력으로 몇 마디 던져 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다. 영어 실력이 좋았다면 이번 강연은 정말 좋은 기회였을 거란 아쉬움을 남겨 본다. 중간에 서울대 교수의 해설이 있었지만, 동시통역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웠다. 그리고 강연을 듣고 나서는 나의 작은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강연을 학생차원으로까지 확대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감각을 키워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 분야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주목같은 강연만은 못할 것이며, 산 영어를 대할 기회를 갖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김소현 국어교육 1)

독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비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매내외, FAX: 56-2204)

□ CEBS에 바란다

절차의 중요성 인식하길

5월의 푸르름이 한창이다. 나는 그 푸르름에 맘껏 날개를 펴보고자,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CEBS)에서 주최하는 아라가요제에 참가원서를 냈다. 하지만 날개짓을 해보기도 전에 쓰라림을 맛보아 했다. 예선에서부터 떨어져 버린 것이다.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다. 당연히 통과하겠지라는 기대가 깨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단지 관계일뿐, 내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CEBS의 행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방송국에서는 5월5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마감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6일 오후 1시에 야외공연장에서 예선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6일 당일에도, 그것도 2시간 전에 연락을 취해 방송국 사정으로 예선이 연기됐고, 원서마감도 8일까지 연기됐다고 전해주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내막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참가원서를 낸 이상 9일에 있는 예선에 참가했다.

예선 참가팀은 사정이 있는 2팀을 제외하고 총8팀이었다. 그 중 1팀은 졸업여행관계로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를 예선을 치렀다. 명색이 예선이라서 그런지 심사위원도 있었다. 3명이 심사위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중 2명은 CEBS 학생이었다.

이름후에 개별적으로 합격 통보가 있었다. 하루종일 연락이 오지 않아 떨어졌을 알았다. 본선도 아닌 예선에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난 예선탈락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너무도 기준없는 예선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방송국 사정에 따라 공개행사가 마음대로 조정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방송국에서는 예비소집으로부터 예선시작 시간까지 공정한 거리의 모든 시간의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 않았고 방송국 사정에 따라 행사를 마음대로 조정했던 것이다.

둘째, 게다가 테이프를 대신한 예선탈락에 대해서는 수금이 가더라도, 당일 예선에 참석하지 않

고서도 후일 개별예선을 통한 예선탈락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방송국 사정에 따른 임의대로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합격과 불합격을 따지고자 했다면 분명히 어떠한 기준이 예선 시작전에 제시되었어야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또 내 잘못도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무대매너 등과 같은 심사기준을 알았다면 예선에 조금더 충실

반성해야 할 우리모습

꼭 자가용 끌고 등교해야만 하나

제대하고 복학을 한후 주위를 보니 옛날에는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던 공터가 주차장이고 길가에 한줄 혹은 두줄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 그중 교수님께서 타고 다니는 것은 몇대 안될 것이다. 무슨 능력으로 학생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타 일을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차를 끌고 다닐수 있지만 내 생각엔 대부분 부모님이 차를 사주었다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는 집에 차가 한대 있는 데 사용하지 않아서 하루 학교에 몰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모든 대학생이라면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은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나가길 원하고 그렇게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서만큼은 대부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나도 부모에게 등록금 기타 용돈 책값등을 타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무리하게 부모의 돈으로 차를 사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제적 문제를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한 국민들이 조금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양재경 기계공 3)

어떻게 된겁니까? 시설과 답변

“자동문설치 비용 일반문과 차이없다”

예산,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

본지 5월10일자(525호) ‘독자의소리’를 통해 경영학과 고상미 학우가 지적했던 ‘본관현관 자동문 설치 시급한 건지’에 대한 관제당국의 답변을 들어 보았다.

현관문 교체이유에 대해 시설과 김병호 과장은 “지난 79년에 설치된 종전의 이중차시 현관문이 고장이 잦아 계속 보수공사만 해오다가 보수할 부속품마저 생산이 중지된 상태이고, 검은 타일로 뒀었던 현관 벽체도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꾸 떨어져 보기 흉한 모습을 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과장은 “본관 현관은 지난 79년 만들어져 16년이나 경과돼 그 교체가 필요했고, 화장석관벽체 및 자동문 설치에 모두 3천5백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꼭 자동문으로 교체했어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사담당자 김근영씨는 “일반문의 경우 방음 및 온방효과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오히려 자동문으로 할 때보다 86만원이라는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과장은 “일반적인 여

단인 문이나 자동문 시설에 따르는 시설비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다만 자동문을 설치할 때는 자동개폐기 모터(3백60만원)와 인공감지장치(1백20만원) 설치비만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학우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동문을 설치하기 위해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된 이 문제는 당초 정책결정자들이 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치 않고 시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상미 학우의 지적대로 대학당국에서는 학생들의 강의실환경을 바로 파악하여 이에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겉치레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행정을 보여 주길 바란다.

예컨대, 95학년도 예산서에서도 보이듯이 회의실 및 비서실 카페트를 교체하는데 4백80만원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학생취업대책에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운영의 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용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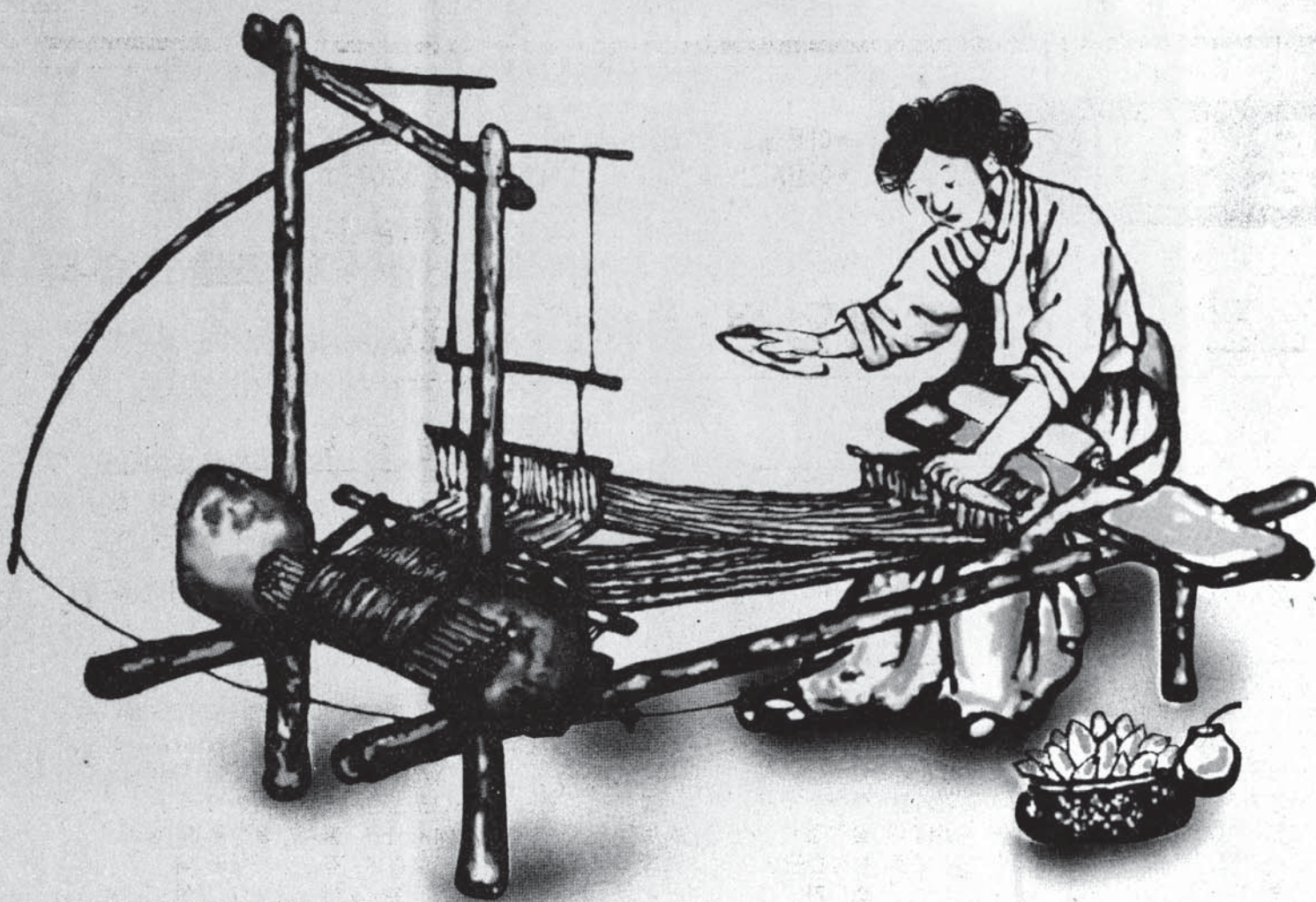
‘술판’ 지양한

진정한 놀이문화를

이제 조금 있으면 약 1주일 동안의 축제가 있을 예정이다. 1년 전 대학에 들어와 첫번째 축제를 접했을 때 살마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운동 술판 뿐 진정한 놀이 문화가 그대도 최고의 지성인을 자처하는 대학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실망시켰다. 그럼 왜 그렇게 놀이문화가 정착이 되어있지 않은 걸까? 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간단할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갑작스런 부의 축적, 이것을 어떻게 활용 못 하고 먹고 마시는데 탕진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각 동아리별, 학과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알겠지만 매년 그게 거라는데 아무 흥미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축제를 전야제를 위한 축제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지성인 대학인은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때 진짜 맛있는게 아닐까? 진정한 대학인이려면 놀때도 확실하게 화와 준비로써 즐기길 아는 대학인이 됐으면 한다. 그냥 술마시고 흥청망청 보내버리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젊은 시절이 아닌가 한다. (오명성 원예2)

POSCO 메세지 편환권



단원 김홍도(조선시대 1745~?) 풍속도 일부

예로부터 조선시대나 옛 중국에서는 여인들의 길쌈(베짜기)은 생계를 위한 커다란 수단이었다.

孟母斷機之教

맹모단기지도

유학을 떠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가 보고싶어 공부도 채 마치고 전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 온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짜고 있던 베를 결의 장대로 자르며 아들을 타이렸습니다. “네가 학업을 그만 둔 건, 내가 우리 가족의 생업을 이어갈 베를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아들은 그 길로 다시 유학을 떠나 힘써 정진을 한 결과, 천하의 명유(名儒)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공자 이래 가장 유명한 대학자孟子입니다.

밝은 내일은 힘써 학업에 열중하는 젊은이만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국민의 기업, 우리의 기업 -

포항제철

□ 정보화사회론, 어떻게 볼 것인가

'기술결정론'으로 현실적인 지배관계·모순은폐

과학기술의 주체되려면 사회민주화 우선돼야

정보화 담론

요즘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세계화'이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말을 강제 유포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 그 구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냉소가 조장되고 있어 일시적 유행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정보화사회'의 담론은 80년대부터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꾸준히 지배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계의 황제' 빌 게이츠가 미국 최대 갑부로서 우리 시대의 신화와 영웅상을 창조하고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가 '정보 초고속도로'란 말을 쓴 후로는, 세계화 담론에 정보화사회로 크게 변해왔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제1의 물결은 약 1만년 전 시작되어 인류문명을 일으켰다. 제2의 물결은 약 2백년 전 출현해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인류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자본주의사회나 사회주의사회 모두 이 물결하에 있었음은 당연하다.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제3의 물결은 수십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만 산업사회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이상적인 문명을 우리에게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제3의 물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저서의 논리는 이처럼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욱 호소력이 있다.

별은 사회학계의 대가답게 논리를 단순하게 펴지는 않는다. 그는 토폴라에 앞서 70년대에 '탈 또는 후(Post) 산업사회'를 얘기하면서 과학기술 등 지식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경제가 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식' '정보' 또는 '전문' 등 어느 하나의 용어로 새로운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대의 산업사회와 기본성격이 다르다는 의미의 탈산업사회라는 표현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산업사회 이전의 농업사회도 간단히 전(pre) 산업사회라고 이름붙였다. 하지만 그의 기본논지와 주장도 토폴라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몇년 후에 그는 탈산업사회의 맥락 속에서 정보화사회가 출현한다고 『정보사회』를 저술하였다.

이들의 논리가 중심이 된 정보화사회론은 인류사회의 기초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다시 정보산업으로 이행함으로써 사회구조가 질적으로 변한다고 본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구조도 변화시켜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종사자'의 노동력이 다수를 차지하며 권력관계에서도 중추를 이룬다. 그래서 어떤 자는 무계급사회를, 또 어떤 자는 '테크노크라시'를 얘기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별이나 토폴라는 사회의 핵심적 자원이자 조직원리가 자본에서 지식·정보로 바뀌면서 산업사회의 특징이었던 재산소유에 기초한 계급관계가 사라진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계급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지식·정보의 소유와 통제 권력의 새로운 원천이 되며 이를 담당하는 전문·경영·기술직 등 중간층이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하고 정보화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사회에서는 노동상황과 생활양식도 크게 변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탈분업화, 취업의 유연성, 재숙련화, 위계서열의 쇠퇴와 평등한 노사관계, 재택근무, 여가의 증대, 탈규격화 및 개성화, 분산화 및 분권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 효과적으로 전달·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민주제가 촉진되어 '전자'민주주의 시대로 열린다. 제3세계 개발전의 남북문제도 선진국의 산업과 기술의 이전,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이용한 산업사회 문제점 회피의 이점 때문에 과거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정보화 사회론은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소홀히하는데 그 맹점이 있다.

권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 효과적으로 전달·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민주제가 촉진되어 '전자'민주주의 시대로 열린다. 제3세계 개발전의 남북문제도 선진국의 산업과 기술의 이전,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이용한 산업사회 문제점 회피의 이점 때문에 과거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화사회론의 함정

과연 미래는 아름답기만 할까? 정보화사회론의 논리에 맹점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인류사회의 기초가 농업, 공업, 정보산업으로 변해왔다는 것은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모든 사회가 반드시 단선론적으로 진화해가나 이행해온 것은 아니다. 경로는 다양하다. 날이 갈수록 정보 산업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격도 복잡하여 하나로 단순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산업에만 초점을 둔 사회 파악방식은 사회구조의 또 다른 기초인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면적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무계급사회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것은 단지 계급지배의 조건을 변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은 자본축적의 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지식·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계급의 출현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미래를 테크노크라트가 지배

한다는 주장은 필요불가피성과 권력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막스 베버의 말처럼 "만약 필요불가피성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노예노동이 필요불가피했던 고대사회에서는 노예가 권력의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다. 물론 일부 테크노크라트가 앞으로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를 지배하지도, 재산소유에 기초한 계급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못할 것이다.

노동상황은 한편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한편 자본이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유연성 증대를 지배강화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즉 탈숙련화, 실업 및 주변적 노동자층의 증대,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의 약화 등이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기술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이 기술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도 노동상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생활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 못지 않게 정보의 집중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 정보의 집중화에 의한 권력의 편중과 지역간 정보격차 심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과 국가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보편적 권리가 오히려 이용되고 차단될지도 모른다. 조지 오웰의 표현처럼 '빅 브라더'가 탄생할 수도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발전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비현실적이다. 현재 남북간의 정보격차는 유지·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이 이를 시장화하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사회론은 '기술결정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사회를 변화시킨 가장 큰 추동력은 기술이었다.

과학이야기



홍창보

소나무는 왜 죽어가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소나무라고 부르는 해송(곰솔)은 우리 지방 기후 풍토에 가장 잘 적응되어 단일 수종으로는 제일 많이 분포된 향토 수종이다. 그래서 소나무(지금까지 소나무라 불러 온 점을 감안하여 편의상 해송을 소나무라 표기한다)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소나무를 베 놓은 제주도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 구석까지 자리하여 항상 푸르르고 싱싱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상당 면적의 소나무숲이 누렇게 증병을 앓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1989년도에 서귀포에서 처음 발견된 솔잎혹파리가 지금은 거의 도 전역에 확산되어 전체 소나무 임지 17,130여 ha 중 49%에 해당하는 8,400ha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도에 목포와 서울의 비원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은 전국의 소나무 임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방제 비용만도 312억원 정도에 산림 병해충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이다.

솔잎혹파리의 가해 수종은 우리가 흔히 소나무라고 부르는 해송(곰솔)과 적송이라고 부르는 소나무이며, 5엽송이나 리기다 같은 3엽송에는 피해를 주지 아니한다. 솔잎혹파리의 피해 양상은 애벌레가 당년 자란 솔잎의 밑 부분에 불룩하게 충형(벌레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 먹음으로써 피해를 받은 잎은 생장이 중지되어 다른 잎보다 짧아지게 되며, 보통 11월 경부터 누렇게 변색되어 봄이 되면 낙엽이 되므로 전년에 자란 가지의 잎이 다 떨어져 엉성하게 되며, 피해가 반복되면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

솔잎혹파리의 생활상을 보면 성충은 작은 파리 모양으로 몸 길이는 2mm 정도이며 5월 상순

에서 7월 상순 사이에 번데기에서 우화하여 1~2일 동안에 0.1mm 내외의 타원형 알을 어린 솔잎 1개에 8개 정도씩 약 110여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 알은 5~6일 만에 애벌레가 되어 솔잎의 밑 부분에 내려와 충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 먹으며 살다가 9월 하순경이 되면 충형을 탈출하여 땅 속이나 낙엽 등 지표물 밑에서 겨울을 난 후 20일 내외의 번데기 기간을 거쳐 다시 성충(솔잎혹파리)이 된다. 번데기에서 우화한 솔잎혹파리 성충은 자기 힘으로는 불과 400m 정도밖에 못 날아가지만 바람이나 물의 힘을 빌려 수 km까지 이동을 한다.

서귀포에서 처음 발생한 솔잎혹파리는 육지부에서 조경용 수목 등에 섞여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솔잎혹파리가 처음 발생하면 보통 7년을 전후하여 피해가 최고도에 달하여 죽은 나무가 발생하게 되며, 약 10년이 경과되면 대부분 전체 과의 생태적 균형이 유지되어 안정상태로 회복된다. 방제방법으로는 애벌레가 땅 속에 있을 때에는 다수인 3% 일제 등 살충제를 지면에 살포해 주며, 애벌레가 솔잎에 충형을 만들어 생활할 때에는 농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으므로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포스팜 액제 50%를 주사해 주며, 솔잎혹파리 먹충벌이나 사리먹충벌과 같은 천적을 사육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생물학적 방제 방법과, 요소와 마그네슘 용액을 비행기로 살포하여 피해를 입은 소나무의 수세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는 항공엽면시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비용이 많이 들고 매년 중복해서 방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나무 숲이 하루 속히 생태적 안정을 회복하여 울창하고 우람한 숲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 본다. (제주도수목시험소장)



이상철

사회학과 부교수

론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회의 담론의 기운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들 대다수가 현재 사회나 다가올 21세기 미래사회의 기본성격을 정보화사회라고 당연시하며, 이러한 추세에서 나온 '컴맹'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증가율이 근래 몇년간 연평균 50% 안팎일 정도이고, 삼성전자 1개업체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국내 전대학의 일년 연구비보다 많은 것도 그 까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가올 사회는 과연 정보화사회일까? 그 외에 다른 사회가 될 가능성은 없는가? 설사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잠미빛 미래'를 약속하는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환상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었을까? 누가, 왜,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에 각인시켰는가?

정보화사회론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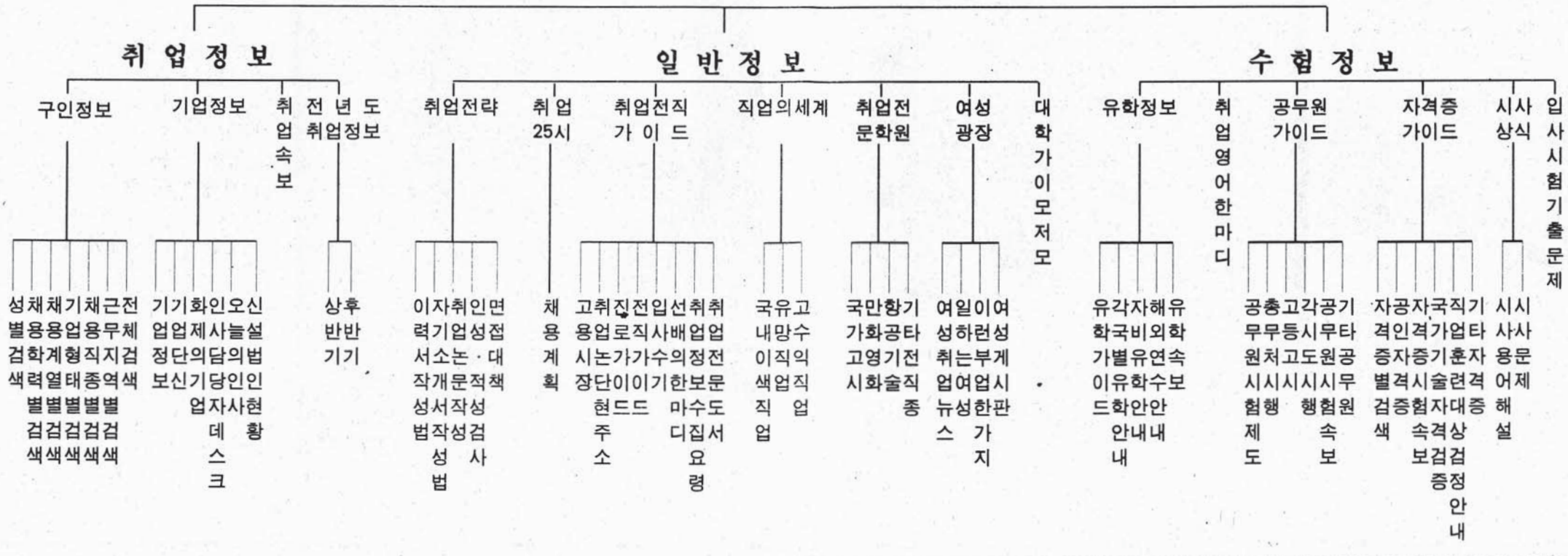
정보화사회론자들 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주자는 앨빈 토폴라와 다니엘 벨이다. 토폴라는 인류문명이 원시사회에서 농업혁명(제1의 물결)을 거쳐 농업사회로, 이는 다시 산업혁명(제2의 물결)으로 인해 산업사회로, 이것은 또 다시 정보혁명(제3의 물결)에

취업정보망 이용 안내

- 이용장소 : 장학실내 취업정보자료실, 각 단대 행정실
- 이용시간 : 09:00~17:00 (단, 토요일은 09:00~12:00)

학생처 장학담당관실

제주대학교 행정전산망 GINS취업정보 MENU표



광주 고등학생들의 5·18—그 기억의 잔상과 밑그림

“실제 그런 충격전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모래시계’등 통해 광주역사 알아…대부분 피상적 인식

“중간고사 보다가 나왔다”, “니 시험공부는 다 했냐?”는 등의 대화를 하며 교복을 입고 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총을 들고 있던 고등학생들.

드라마 ‘모래시계’중 광주항쟁부분에서 보여진 모습이다. 학생이지만 도청을 지켜야겠다고 총을 받아 안았던 그 당시 그들과 같은 또래이자, 교장을 지키려고 애쓴 그 당시 시민들의 자식인 요즘의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5·18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무작정 학교로 아이들을 찾아나섰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80년 당시 시민군이 투쟁가였던 어른들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꺼려하거나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애국자”

대동고등학교 칼꿈마을 힘겹게 올라가다 보면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팔십년 오월광주의 아들’이라 새겨진 전영진 열사 항쟁순의비가 보여 무언가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1층 상담실에서 학생 2세라고 불리는 혈기왕성한 김동필, 김동환, 어지영, 한승수, 윤기환, 고준범, 윤누가 등 2학년 남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들은 왜 5·18에 대해서 묻는지 의문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현재는 진상규명도 안되고 증거자료도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고려해서 질문했으면 한다”는 기한 이.

전경이 모여있는 곳 앞을 지나 가면 ‘존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들은 TV에서 5·18다큐멘터리 또는 이곳저곳에서 들은 이야기, 드라마 ‘모래시계’ 등을 통해서 5월 광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갑자기 동필이가 “실제로 충격전이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분명히 대장이 환각제를 공수부대원들에게 먹여서 환각상태에 빠뜨려서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말하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5·18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지영이가 “물론 나가서 싸워야죠. 정치를 잘못하면 데모를 해서라도 고치게 해야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승수가 대뜸 “아니, 난 지켜보겠어. 하나뿐인 목숨은 소중히 해야 돼. 우리의 상황을 다른 곳에 알릴 수 있게 살아서 후일을 도모해야지.”하고 말했어. 또 다



◇우리의 뒤를 이을 청소년들에게 5·18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알리는 것은 등한시한채 5월문제 전국화만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른 학생이 “총을 들고 나가서 도청을 지켜야지. 난 할 수 있어. 그 래야 애국자잖아”라고 말해 논쟁이 불기도 했다.

숨겨진 역사

“외삼촌이 그때 돌아가셔서 망월동에 몇번 가기도 했지만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부모님이 알려 주시지 않았다”는 박석환(조대부고 1)군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광주문제를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을 더부시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5월광주민주항쟁의 역사

를 바로 잠을 다음 세대인 것을 우리는 왜 자각하지 못하고 ‘쉬쉬’해야만 하는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현대사중 5·18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부군부세력이 12·12사태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반박한 역사를 바로 알려줄 산증인인 선생님에게서도, 부모님에게서도 진실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의 뒤를 이어 역사를

바로 잠을 청소년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 5·18에 대한 이야기는 숨겨둔 채 우리는 5월문제 전국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좀더 많은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를 고민해야만 한다. “80년 5월에 어땠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비록 그들이 아직 성장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옥자 조선대신문 문화부장)

둘하르방

경찰의 위법과 친변호사의 소신

인권은 저절로 쟁취되지 않는다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한다.” 이는 변호사 윤리강령의 첫 구절이다. 최근 이 말의 품위를 한층 더 높여준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함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대학교 학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새오름’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3일 추가구속된 강영선·고경욱등문의 변호를 맡은 최병모변호사가 경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

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조만간에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변호사를 흔히 ‘돈’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요즘 세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변호사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 줬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도 변할 줄 모르는 경찰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최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신의 변호회뢰인인 강영선(국고 88학번)등문과 고경욱(일문 89학번)등문에 대한 집견을 신청했으나 집견장소에 수사관이 입회하는 바람에 자유로운 대화를 전혀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비밀접견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수사관의 입회에는 이미 92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재판관 전원합의 결정문에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 제18조 3항 및 62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명백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단지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최변호사와 구속자들간의 대화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로 인해 경찰에서는 변호사나 변호회뢰인의 자유로운 대화를

방해한 것은 물론,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변호인측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소위 ‘문민’이라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경찰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잔재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아무리 치안유지를 위한 수사행위라 해도 법대두리 안에서 모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경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흔

히 조작작이나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행위라고까지 인식되는 이런 행태는 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 말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최변호사와 같은 소신있는 변호사들과 전국민이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한 악법철폐 투쟁속에서만 인간의 존엄성은 성취되는 것이다. (順)

無 論 有 說 대학교수와 스승

스승은 배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다

I

스승의 날이라고 간혹 졸업생으로부터 축하전보를 받는다. 그럴 때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흐뭇함을 느낀다. 그런데 이번 스승의 날에는 생각지도 않은 엽서 한장을 받았다. 내가 한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이 스승의 날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낸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놀라셨지요?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일년에 두서너 번 볼 때마다 친근감이 가고 정말 잘 아는 선생님·선배님 같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했었는데, 이번에는 날도 날이고 하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인사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까마득한 후학이고 제자인 제게 선생님도 알지 못하는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께 무언의 동의와 지지를 보내는 저와 그밖의 후학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연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봄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내가 졸업한 대학의 후배이기도 한 그 학생을 처음 만났다. “순희의 생애 이야기에 나타난 가족: 국제결혼 여성의 삶”이란 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그를 그 다음에도 몇 번 한국문화인류학회의 각종 학술행사에서 만나기는 했었다. 스승이나 선생의 입장에서 한 수를 가르친 적은 도통 없는데도 내가 모르는 도움을 그 학생한테 주고 있다는 고백을 듣고보니, 선생으로서의 대학교수는 어떤 것일까.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승으로서의 대학교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

II

대학교수로서의 나의 생활도 어느새 12년째로 접어들었다.



이철인

국민학교나 중등학교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거치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수법도 배운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된 사람은 적성과 인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교수법이나 교육학을 꼭 들었어야 하는 법도 없다. 단지 학문을 직업으로 택한 것 뿐이다. 대학교수가 되는 길을 보면, 선생으로서의 대학교수보다는 학자로서의 대학교수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선생으로서의 대학교수는 어떤 것일까? 일방통행식의 수업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대학교 종강을 할 때면 내가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는가에 대한 회의 때문에 늘 우울한 마음으로 한 학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런 내가 스승의 날이나 사은회에 참석하는 날에는 학생들이 은혜를 들었으니 늘 뜻적이다.

『금성관 국어대사전』(1991년, 금성출판사)을 찾아보니, ‘교수’는 ‘대학에서 전문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며,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고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른 두 사람에 비해 교수는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다. 알차게 강의하기 위해서,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 교수의 연구는 필요하다.

스승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사

람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탁월한 교수가 되는 방법은 연구와 강의에서 찾을 수 있지만, 스승이 된다는 것은 앞서 소개한 엽서의 내용처럼 배움을 받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수와 선생을 스승으로 만드는 것일게다.

III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국민학교 4학년인 둘째 높은 이 글의 제목을 보더니 교수나 스승이 같은 게 아니냐고 반문을 한다.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 스승은 옛날 말이고, 교수는 현대적인 말인가 보다”고 나름대로 규정하였다.

교수와 스승이 같다는 말은 국민학생 아이의 입장에서 모든 선생은 다 스승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옛날과 현대의 구분은 스승은 어느 시대에도 있는 것이지만 교수는 전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는 제도와 그에 따른 교수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선생은 있되 스승은 없다라는 세간의 말을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를 국민학생이 그 말만 기억하고 나온 결론일지도 모른다.

모든 선생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지금 내 나이가 되어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고작 자기 담임 선생님 교탁에 쌓이는 선물의 양과 아빠가 집에 가져오는 선물의 양을 비교하는 우리 아이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스승이 국민학교에만 있지 않고 머리가 커버린 대학생이 되더라도 스승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학과 부교수)

버팔로와 함께하는 자연의 재발견—② 제주도



천개의 전설과 신화가 숨쉬는 곳 유채꽃의 봄으로 거듭나는 땅, 제주도.

새월의 무개가 쌓이고 쌓여 전설이 되고, 전설이 쌓여 신화로 살아있는 곳, 제주도. 더러는 물길로, 더러는 하늘길로 찾아 드는 발길을 언제나 무심한듯 한라산에서 뿔아내린 넉넉한 땅으로 감싸 안는 곳—천년을 피고 진 유채꽃의 눈부신 봄 속에 한 새월 아픔도 한새월 바람도 고요히 감싸고 있을 뿐, 제주도는 말이 없다. 그저 저만치서 바라보는 물은 향해 “아스라한 전설의 윤토와, 상상의 섬 이어도는 사람과 사람사이, 육지와 바다 사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고 낮게 속삭일 뿐. 세상살이의 바거움, 대립과 갈등의 상처를 새월의 바람으로 씻기우고 화해와 손길을 내미는 곳—봄으로 거듭나는 땅, 제주도여.

자연에 향한 젊음의 발길,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도탈패션의 名家
金강製靴 株式

강연초록 역사와 문학: 제주 4·3사태와 그 소설화문제

4·3은 제주사회의 총체적 '주변성' 측면서 파악해야
『한라산』,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생각토록 하는데 의의 뒤

1.

제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민란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것은 결국 1948년 소위 (4·3사태)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6여년 동안 이 사건을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 남원을 중산간 부락으로 사건 당시에는 빨치산 해방구나 다름이 없었고, 그래서 마



현길연

한양대학교수·소설가

을 사람들이 해안부락으로 피난가지 못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산간부락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저와 같은 처지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체험과 그 상처는 지난 과거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제 경험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안 큰일 때에나 제사 때에 모여앉으면, 혹은 여름날 피아발 아래서 김을 뿜 때에, 사람들은 그 때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 때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 때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그 사태를 가장 뼈아프게 체험했던 장본인들이었는데도, 이야기를 하거나 들으면서, 흥분하거나 어떤 논쟁을 하거나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데도, 그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나, 그 험악한 역사에 대해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담담한 어조로, 마치 어제 당했던 일처럼 생생하게 말하고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해서,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차라리 죽

는 것이 낫주"란 말로, 그 사태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을 대신합니다.

왜 그들은 고통스럽게 그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들의 언어에서는 감정이 절제되었을까요?

4·3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들의 이러한 정서나 태도는, 물론 제주사람들의 정서나 체질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역사와 문학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2.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50년 가까이 지나는데 현재까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것은 4·3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국 사회 상황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폭동)이라는 보수적 입장에서부터, 외세와 반(反) 통일에 대한 (민족저항)으로 인식하는 진보적 태도는, 각각 그 나름으로 의미와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입장은, 후세에 4·3을 보다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보수 우익적 입장으로만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정부 수립 2년 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로 인해 민족상잔의 전쟁 와중 속에 살아왔고, 4·3도 그러한 전쟁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3사태의 문제와

는 달리, 좌·우 냉전 체제 갈등의 부산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70년대 중반부터 냉전이 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의 기운은, 사회학이나 학문적으로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틀을 제공하면서, 민주화운동의 물결과 함께 일어나면서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3에 대한 소위 진보적인 인식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립되는 두 입장에서 4·3을 보아왔다면,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이 상반된 두 인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논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이해로는 그 사태를 정직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틀 자체가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문이나 정치적 논의로써는 4·3에 대한 인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적 사태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어떤 사태에 대한 정치·역사적 이해는, 논의의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강요배 화백의 '토벌대의 포로'.

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서, 사실에 대한 문학적 인식이 보다 중립적일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4·3을 보는 입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변성)이라는 틀을 잠정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사태를 문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3.

4·3사태의 주변성은, 우선 제주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주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까지, 38선 이남에서는 제주사태보다 더한 좌우익의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보다 조직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어서 발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태가 해방공간의 한국 전쟁 속에서 좌·우익의 정치적인 대립 갈등으로 빚어진 정치적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왜, 제주사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비극적으로 전개되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전혀 정부의 관심 밖에서 내팽개쳐진 채 남아 있을까. 이 점은 4·3사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즉 그것은 이 사태가 지난 주변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3사태 그 자체가 주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해방 전국 상황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인식의 취약성, 사태에 대한 군정이나 우익측의 인식과 그 대응 양식의 문제, 사태 성격의 모호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태를 발발시킨 좌익 지도부에서는, 제주에서 공산혁명을 시도하였을까? 제주가 정말 공산혁명이 일어날 만한 여건이 한국 어느 지역보다 성숙되었던가.

4.

이번 제가 쓴 『한라산』 1부(배반의 땅)에서는, 표제 그대로, 제주라는 지역의 의미를 세계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서 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역사는 세계사의 흐름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변두리 지역으로서의 성격과 그 비극성을 소설을 의지해서 드러내려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는 2, 3년 전부터, 세계 열강의 싸움터에 끼여들 수밖에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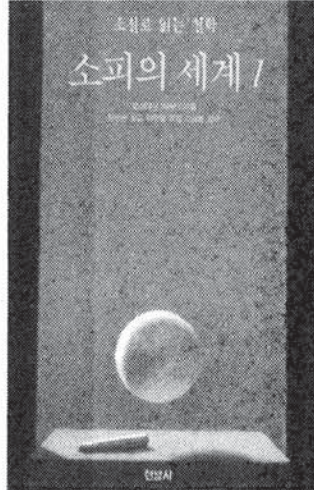
요슈타인 가아더 『소피의 세계—소설로 읽는 철학』

독자와 철학적 질문간 거리 좁혀줘

내가 처음 『소피의 세계』를 접한 것은 몇달 전 어느 일간지—서평인지 광고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에서였다. 그때만 해도, 내가 읽어 볼만한 책으로는 여겨지지 않았고, 단지 올해 고교에 입학한 딸에게나 읽어 보라고 권할 만한 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들이닥친 『소피의 세계』에 대해 서평을 써달라는 제대신문 기자의 원고청탁에 못이겨, 딸에게 주었던 책을 빼앗아 내가 먼저 읽을 수밖에 없었으며, 다 읽고 난 지금 이 책에 대한 서평보다는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책은 서평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느끼고 반성하도록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3권의 책 중 2권 중반까지 읽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그런 책으로, '소설로 읽는 철학'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기껏해야 철학을 소설의 대화형식을 빌려 소개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런 나의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때까지 현실로 여겨지던 소피의 세계가 비현실이 되고, 환상처럼 보이던 비현실이 현실로 뒤바뀌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전되며, 종래는 현실과 비현실이 뒤바뀌어 되어버리고, 독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런 혼란은 읽는 자로 하여금 그 자신에 대해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질문은 저자인 요슈타인 가아더가 엄밀하게 따지면 책 전체의 철학적 구도 속에서 유도하고 있는 질문이다. 책 중에서 언급되는 철학자는 모두 철학 선생의 입을 통해 소피에게 알려진다. 오직 버클리만이 소피가 유일하게 초상화를 통해 알게 되는 철학자이다. 버클리는



나하면, 이런 철학적 질문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와 세계에 대해 놀라움을 발견하게 될 때 제기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은 틀에 박힌 일상성 속에 매몰되고 거기에 익숙해짐으로써 모든 것을 '원래 다 그런거야'로 얼버무리고 있었던 나를 그 틀로부터 떼어낸다. 그리고 익숙하게 잘 알던 모든 것을 낯선 것으로 경험하게 만들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나아가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 자신과 나의 자리를 확실히 하는 질문을 일으킨다. "슬픈 일은 우리가 이 세계에 길들여지고 있는 점"이라고 소피의 철학 선생이 한 말이다. 철학의 현실이 아니라, 존의 정신 속에 자리하는 관념적 존재로써 신의 의식의 산물이다. 소피와 철학 선생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 모두는 그들을 만든 크나 소령의 의식의 산물이며, 크나 소령은 다시 요슈타인 가아더의 의식의 산물이다. 소피와 철학 선생은 사고할 줄 아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크나 소령은 그들을 조종하는 꼭두각시와 연출자의 구도는 크나 소령과 저자인 가아더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구도가 우리의 세계와 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아더나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어떤 보장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 어떤 존재자의 정신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의식이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면, 그렇게 묻는 자는 이미 철학을 시작한 자이다. 왜

『소피의 세계』는 독자와 철학적 질문의 거리를 좁혀 준다.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읽는 자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해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으로 이 책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런 철학적 질문에 성급한 답을 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철학의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성급한 결론은 미신을 유발시킬 뿐이다.

허정훈

(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없었던 제주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황을 취급했습니다.

2부 (성조기 시대)에서는, 제주에서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5년 9월부터 1947년 3·1사건 때까지를 여러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미군정하에서 제주사람들의 꿈과 그 좌절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1, 2부에서는, 주로 제주 사회에 있었던 변두리 지역으로서의 성격과 그 비극성을 소설을 의지해서 드러내려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는 2, 3년 전부터, 세계 열강의 싸움터에 끼여들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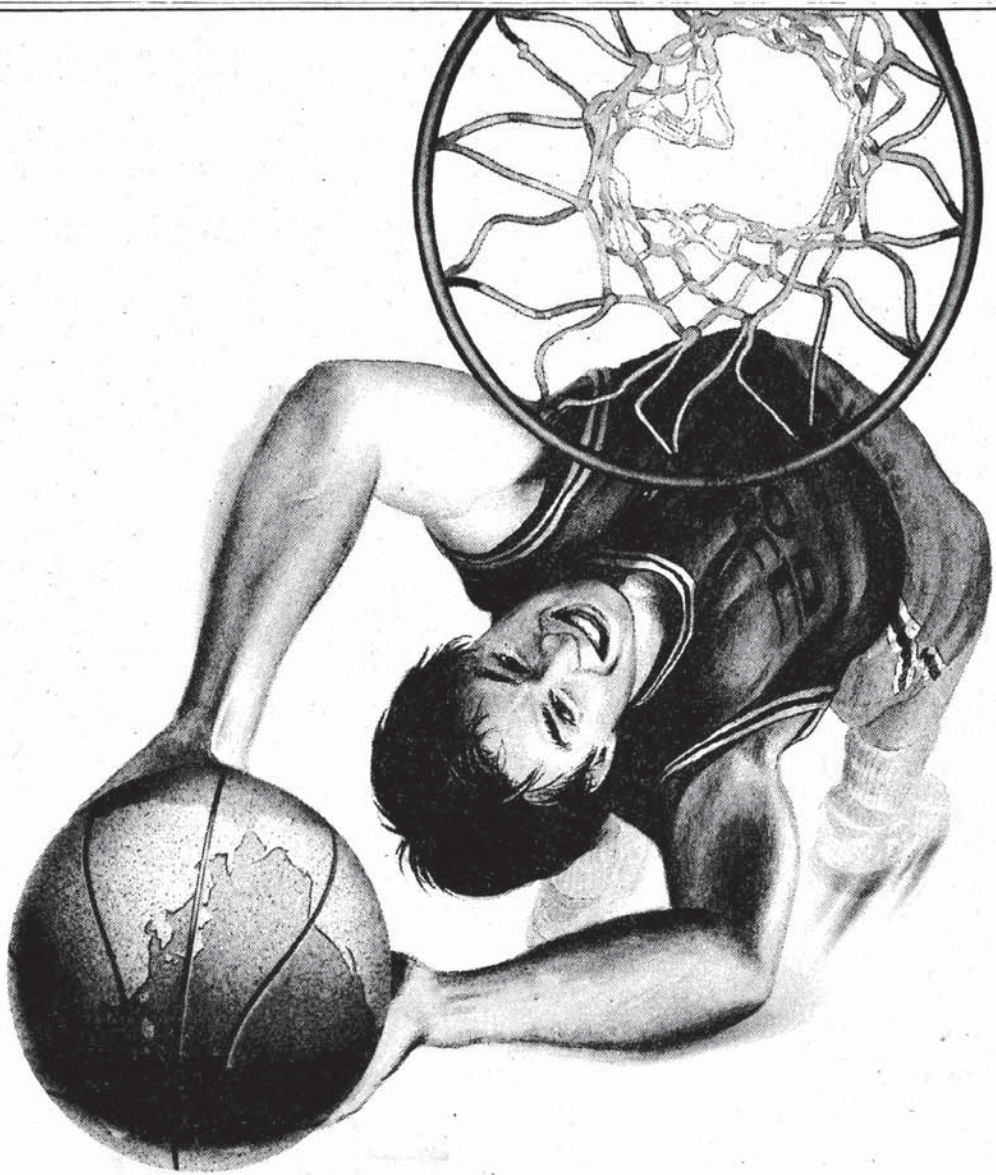
없었던 제주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황을 찾아낼 수 있리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발간될 제 3부에서는, 4·3사태의 와중에서 제주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낼 것이고, 4부에서는 섬 밖으로 탈출한 4·3의 지도부 층의 삶을 조명할 것입니다. 소설의 대안원이 될 결말인 5부에서는,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4·3의 후예들의 오늘의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제주 역사를 배경으로, 그 거친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주라는 한 공간의 문

제를 떠나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작품의 의도가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을 문학(소설)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라산』은, 제주 사태를 소재로 쓴 작품의 한계성을 극복해서, 역사에 대한 해석을 결한, 즉 인간과 사회담구의 한 묶음 소설로써 감당하려고 했으며,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을 소설을 통해 정지하게 인식한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 소설 속에 늘 크게 자리잡고 있는 내 문학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아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주)금강

세계적 명성의 페인트, 수지, 실런트—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벼야 할 무한한 코트—

금강·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출자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부시별 사업계획을 듣는다

제주시 옛터지명찾기사업등 박차
성읍 객사지 발굴조사 보고서등 발간 예정

박물관

우리대학 박물관(관장 이청규 사학과 교수)에서는 지역적 발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맞추어 매해 유적지를 탐색하여 발굴조사작업을 벌이고 발굴의 결과로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 교육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박물관에서는 첫째, 4월29일부터 5월27일까지 탐라목석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만능 홍정표선생 사진전'을 주최하여 제주도민의 역사·문화를 선보인다.

둘째로 3월부터 11월까지 남제주군 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벌인다.

이는 폐촌유물산포지를 중심으로 한 선사시대의 유적조사, 사찰과 사당의 유적·유물을 살피는 역사시대 문화조사, 당·포구·돌하르방을 조사 연구하는 민속유적발굴조사로 나누어 남제주지역 개발과 더불어 남제주군 문화재지도 제작을 하는 사업이다.

셋째로 2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관내에서 잊혀져가는 역사유적의 당시 위치를 문헌기록과 현지조사를 통해 알아내기 위한 '제주시 옛터 지명찾기'작업을 벌인다. 관덕정에서 담뚝을 거쳐 오현단에 이르는 제주시안이 위치했던 절터, 관천터, 옛마을 등을 찾아 지명과 연대를 측정하는 이 작업은 과거 제주의 역사유적을 문헌화하여 당시 제주의 옛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로 박물관에서는 에월을 고내리와 서귀포 법화사의 발굴조사작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다. 이 발굴조사는 제주시와 한림을 잇는 일주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긴급발굴조사로 이곳 유적지에서는 기원전후부터 고려초기에 이르는 유물들이 다양하게 발굴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 박물관에서는 만능 홍정표선생 사진집인 『제주 사람들의 삶』을 지난 4월 발간했고, 지난해 발굴조사작업의 결과보고서인 『제주시성읍객사지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임 기자)

규정집 개정발간... 인사기록 전산화
쓰레기분리수거함 10개 더 설치

총무과

총무과(과장 정정우)는 학내의 문서관리, 교내우편물 관리 및 취급, 법령 및 제규정의 제정, 감사관계, 비상계획 및 민방위를 비롯, 인사관리(일반직원) 및 청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에따른 올해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하루 평균 9통 가량 발생하는 학내 쓰레기를 최소화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수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경감시키고자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감독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올해도 여직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폐휴지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13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10개 더 추가 확충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대학의 학칙 및 학위

수령 규정, 부속시설, 연구시설, 위원 규정, 행정 등에 관한 제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규정집』을 재정비하여 발간하는 일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규정집은 92년도에 발간했으나 이후 약 80건의 개정·폐지 또는 제정 됐는데도 규정집이 보완되지 않음에 따라 학사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6월말에 규정집을 수정하여 재발간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내 순환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이에대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수시로 조사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넷째,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산화하는 일이다. 우리대학교 전산망을 정부전산망과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사업무 처리를 기하기 위한 이 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남숙기자)

신임교수 초대석

슈퍼기생충



우호춘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후 기생충은 의사와 생물학자 사이에 항상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살기 위하여 다른 생명체와 일시적 접촉이나 장기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양식으로 생명체와 같이 진화해 왔다.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체표면이나 체내에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자기 몸을 의탁하고 보호받으며, 필요한 영양분을 탈취하는 생활양식을 기생생활(parasitism)이라고 하며, 두 종류의 생명체간에 기거 이외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 이런 생활양식을 기거생활(commensalism)이라 하며, 두 종류의 개체간에 일정불가분의 관계, 즉 서로 주고 받는 관계(give and take)의 생활양식을 공생생활(공생, symbiosis)이라 한다. 여기에서 영양분은 다른 생명체에 의존하고 있는 동물을 기생충(parasite)이라 하며, 영양분을 탈취당하는 대상동물을 숙주(host)라고 한다. 기생충은 숙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기 몸을 보호받으며 생활

하는 연약하고 작은 동물로써, 특히 숙주 체내에서 생활하는 결과로 특이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동물만을 기생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생충은 숙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일이 없는 것이 보통이나 진화가 덜 된 나쁜 기생충은 숙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숙주를 죽이면 기생충의 서식처 뿐만 아니라 영양물 섭취의 대상이 끊기게 되어 기생충 자신도 죽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생활양식 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로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공생생활이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보살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보살핌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내가 남에게 100원을 투자했는데 50원밖에 보상받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50원에 대한 섭섭함 내지 서운함을 갖게 될 것이고 왜 나는 100원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50원밖에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나서 항상 술값을 지불하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을 것이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배운 자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배운 자가 보상받기를 바라고 배웠다면 보상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좀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공생생활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생활양식을 초기생생활(superparasitism)이라고 가정하자. 지구에 기생하는 우리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되,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없이, 항상 주기만 하는 그런 진정한 기생충(true parasite), 즉 'superparasite'가 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로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superparasite가 됩시다.

(수의학과 전임강사)

□ '아라죽전' 이렇게 준비했다

교류·공감의 장을 만드는데 역점 뒤

축제, 참여와 자치공간임을 직시해 주었으면



김 경

대학은 그 지방의 지식의 요람이자 살아움직이는 젊음입니다. 또한 대학은 그 지방문화의 살아움직이는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에 있어 축제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힘과 젊음과 지성이 동시에 살아움직이는 공간입니다.

대학을 열린공간이라 합니다. 울타리라는 거추장스러운 단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대학의 축제는 대학구성원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열린공간이라 하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주대학교 축제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은 열린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대학다운 특유함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통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야제는 참여하는 행사와 보는 행사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여는 마당', '빛마당', '대동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빛마당'에서는 장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클래식과 영화음악, 락(Rock), 민중가요로 구성하여 참다운 대학 음악의 세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퀴즈! 동서남북'과 '출타리' 프로그램이 있는 '여는 마당'은 친구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대동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대학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일부터 한라터에서는 벽화그리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함

께 작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5일에는 길거리 농구대회 예선과 여름방학 동안 배낭여행을 계획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낭여행 설명회, 그리고 밤 8시20분부터는 '저항영화제'란 이름으로 야외에서 영화제가 준비되었고 이 같은 총학생회 행사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동안 캠퍼스 곳곳에서는 26개의 동아리 및 과

알림

제43기 수습기자 추가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 취재·사진·만화가자 6~10명
- ▲지원자격 : 우리대학교 1학년
- ▲제출할 서류 : 본사가 정한 양식의 입사지원서 1통
- ▲원서교부 및 접수 : 5월29일(월)까지 대학원동(구학생회관) 3층 본사 편집국
- ▲전 형 : 5월29일(월) 오후 6시 본사편집국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문의사항 : 제대신문사 ☎54-2278~9

제대신문사

심판

졸업여행 명분 있다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치러진 시험에 연이은 졸업여행과 체육대회 및 축제에 의해 요즘 대다수 학과와 3학년들은 4월부터 임시종강상태에 돌입했다. 이러한 수업손실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행사 중 수학여행 또는 졸업여행은 현실점에서 그 존재여부를 심각히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졸업여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학생활에서 기억이 남는 것은 졸업여행 뿐이다" "여행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도 많이 알게 된다" 등의 얘기들을 한다. 이렇듯 졸업여행은 원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졸업여행이 현실점에서 과연 얼마나 취지에 맞게 뜻있는 행사로 행해지고 있는가.

먼저 학과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라면 적어도 학과 구성원의 70~80% 정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졸업여행을 가는 인원을 보면 많아야 50% 정도가 고작이고 심지어는 20%의 참여율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저조한 참여율에도 그 기간에 모든 전공강의가 휴강된다. 집에는 과에서 단체로 고수의 지도하에 졸업여행을 간다고 하는 말을 해놓고 친구 몇명에서 배낭여행을 가는 예도 볼 수 있다.

기간 또한 문제가 된다. 보통 졸업여행의 기간은 6박7일이나 7박8일 정도로 짧고 있으나 단체여행기간은 2박 내지는 3박만을 같이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개인의 자유시간으로 주어진다. 이 기간에 학우들은 친척집이나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이 다반사이며, 쇼핑으로 소일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졸업여행은 수업의 연장선상에서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취지는 학과의 전공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몇몇 학과를 예로들면 국문학과가 문인들의 생각나 작품의 무대를 돌아보거나 사학과와 경우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든지, 농업경제학과와 경우 농산물유통과정 및 경매하는 광경을 직접 본다는 지 하며 학과 전공내용을 졸업여행 코스에 적극 반영하는 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과의 경우는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참가원들의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학과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여행코스는 즐기 위한 방향으로 잡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일문과나 전기공학과 등 아예 졸업여행을 가지 않는 학과도 생겨나고 있고, 뜻있는 몇몇이 모여 방학때 가는 학과가 늘어가는 추세다. 또한 해양대의 경우에는 승선 실습을 하는 것으로 졸업여행을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수업도 없고 이번 기회에 한번 타지에 있는 친구나 만나보자' '서울에 가서 쇼핑이나 하자' 따위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이니 아무런 비판없이 '가고보자'는 식의 졸업여행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않아도 수업손실이 많은 5월에 본래의 졸업여행의 의미는 더이상 찾기 힘든 채 무의미하게 처리되는 차라리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나을 듯 싶다.

(김한길기자)

유엔 50주년(1945~1995) 기념

전국 대학생 유엔관련 논문 현상 공모

논제

아래 논제중 택 1

-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엔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 유엔 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진 방안
- 유엔의 주요활동 분야(평화보유, 평화유지활동, 인권, 군축, 민주화, 여성, 인류의 복지향상 등)중 분야 선정
- 탄생전시대 유엔의 역할
- 지역문제와 유엔의 역할 사례 연구

대상

대학 재학생

시상

- 최우수작 1편 : 최우수장관상 및 장학금 100만원
- 우수작 2편 : 최우수장관상 및 장학금 각 70만원
- 가작 5편 : 최우수장관상 및 장학금 각 50만원

※ 최우수 및 우수작 입상자에 대해서는 유엔총회 장학기부

마감

1995년 8월 10일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100매 또는 A4용지 20매~25매
- ※ PC 원고 및 원고지 용도 모두 가능
- ※ 요약문 첨부

발표

1995년 9월말(개별공지)

보낼곳

외무부 국제연락국 유엔정책과 혹은 군축협력과

(110-76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기타

- 우편접수 마감은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성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 상세한 내용은 외무부 유엔50주년 기념사업 담당자 (02-720-2334, 2353)에게 문의

주최 : 유엔 50주년 기념 한국위원회·조선일보

후원 : 외무부

통상산업부 지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3차년도 사업 신청 희망기업 및 기업전담지문교수 모집안내

1. 목적 : 지역중소기업 생산현장 예로기술 개발
2. 현황 : 1차년도 1993년 9월 1일~1994년 8월 31일
2차년도 1994년 9월 1일~1995년 8월 31일
1차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9개 지방소재 대학, 2차년도에는 전국 40개 대학이 주관이 되어 중소기업현장 예로기술 타개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통상산업부 평가 후 지원지속이 확정될 경우 3차년도 사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 위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제주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위의 모집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예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연계 관련 교수
4. 선 정 : 컨소시엄 본부 및 관리기관 협의에 기술개발 필요성, 가능성 및 업체 수용능력에 기준하여 선정
5. 신청기간 : 1995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6. 신청할 곳 : 제주시 아라동 1번지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제주지역 컨소시엄 총괄책임자 강영주 교수 (☎3613 혹은 ☎3798)

※2차년도 참여업체 및 참여교수도 3차년도 참여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613이나 ☎3798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역의 육군 현역병 지원 안내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95년 4월25일부터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중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입영계획 범위내에서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하여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보충역 편입된 자 중 신체동위 1급 내지 3급(단, 독자 또는 전공상 사유 등의 복무단축자는 제외)
- 지원시기:연제라도 지원 가능
- 지원장소:지방병무청 민원실
- 제출서류:보충역의 육군 현역병 지원서(지방병무청 민원실 비치)
- 복무기간:육군 현역병과 동일(26개월)

대학생들의 국외여행 허가기준 개선 안내

○만 18세이상의 대학생들의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정부의 세계화 추진 정책에 따라 '95년 4월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개선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여행목적	연수 및 견학	여행목적에 제한없음
여행기간	방학기간중(2개월범위내)	연중(2개월범위내)
추천인자	대학생·소속 총·학장	대학생·소속 총·학장

○국외여행 허가 추천을 받고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권을 제출하면 2개월 범위내에서 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1부 ————— 지방병무청 비치
- 귀국보증서 1부 ————— 귀국보증서 1부
-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1부 ————— 소속 총·학장 발행
- 귀국보증인(2인)의 재산세 납세 증명서 및 인감도장

(제주지방병무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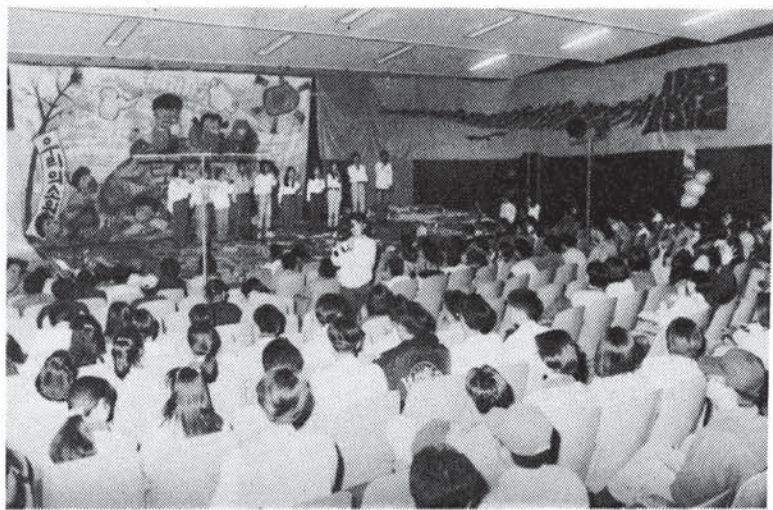
제7기 제총협 공식 출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전개” 결의

제7기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상임의장 이필승 제주전문대학 총학생회장, 이하 제총협)출범식이 지난 5월 13일 우리대학교를 비롯, 도내 4개 대학 2백여명의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대학 법정대 중강당에서 개최돼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자주적 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우리대학교를 비롯하여 제주전문대학, 제주교육대학, 한라전문대학 등이 참가한 이번 출범식행사의 첫날인 12일에는 △통일거리마당(한라대) △과전시마당(체육관 앞) △동아리전시마당(야외 박물관) △현수막전전(교문) △교육의 거리(한라대) △우리차관배(백두관 앞) 등 각종 전시 및 거리마당이 마련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새내기 통일맞이 학교’가 백두관 2층 시청각실에서 신입생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튿날인 13일 법정대 중강당에서는 ‘1만 청년아! 청년의 양심과 청년의 기상으로 조국을 노래하라!’라는 기치아래 오후 3시부터 ‘제7기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출범식’



◇지난 5월 13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린 ‘제총협 출범식’에서 학우들은 “제주민중의 자주성을 쟁취하는 투쟁에 51만 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총물체의 통일관토를 시작으로 △애국의례 △문예일꾼·새내기 문예단 공연 △민족민주 연합 공동위원장의 축사 △연하 내빈인사들의 연대사 △한총협 출범식 참가보고 △의장 윤영식 △출발선언문 낭독 △총협 봉사활동 결의대회 △대동놀이 순으로 치러졌다.

제7기 제총협 의장 이필승 학우는 이번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제총협은 4·3때 ‘미국대대-조국통일’의 구조를 높이 들었던 선배의 역사를 현대로 계승하며 제주민중의 자주성을

쟁취하는 투쟁에 51만 도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실정에 맞는 제총협을 건설하고, 학우들의 삶을 보다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제총협으로의 통일단결을 이룩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제7기 제총협 출범식은 폭우 등의 좋지않은 날씨로 준비했던 행사가 무산되거나 제 시간에 진행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제총협 출범식이 문예패행사등과 잘 구분되지 않아 다소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참가했던

학우들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한편 제총협 출범식과 더불어 ‘제9기 제주지역 동아리 연합회 협의회(이하 제동협)’ 출

2백87명 교육실습 실시

지난 9일부터 도내 30개 중·고서

95학년도 교육실습이 5월8일부터 6월3일까지 4주간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등 도내30개 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범대 행정실에 따르면 교

수시 2.4%(6명)로 집계돼, 대부분이 현재 격주간 발행을 일간 발행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중 가장 유익하거나 관심있게 읽어 보는 내용에 관한 항목에는 △학내뉴스,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52%(150명) △인사발령 및 교직원 동정에 관한 내용 25.6%(74명) △각종안내 및 공지사항 19.7%(57명) △개제내용에 관심 없음 2.8%(8명) 등으로 집계됐다.

▲소식지를 통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의 습득 정도와 그 유용성을 묻는 항목에는 △약간 도움을 준다 69.7%(170명) △크게 도움을 준다 17%(41명) △별로 도움이 없다 13%(32명)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0%(1명)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음악과 관악부 연주회

1일 문예회관서 열려

음악학과 관악연구부(부장 민금배 3)에는 ‘제9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6월1일 오후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제15회 아라가요제’ 탑동서 개최

가수 안치환씨 등 출연... 발전기금모금운동 전개

‘제15회 CEBS아라가요제’가 우리대학교 교육방송국(실무국장 최형석 해양환경공 3)주최로 오는 5월26일 6시30분부터 제주시 탑동 해변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아라가요제는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대학인의 건전한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9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참가 경연을 벌이게 되며, 축하공연으로 우리대학교 음악학과 학우들의 찬조공연과 초대 가수 안치환씨가 ‘잠들지 않는 남도’ ‘꿈아에서’ 등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아라가요제 본선에 참가할 팀과 곡명은 다음과 같다.

△오래전에는 정경숙(법학 3) △난 단지=이경희(국어국문 2) △영원한 사랑=김주희(제주교대 체육교육 2) △또 다시 밤이 지나고=정인아(가정관리 2)

2) △1990. 나의 동화=임유자 (제주전문대 관광영어통역 2) △나에게서=S.H.Y.(수학 2 한승희, 가정관리 1 이윤숙) △

‘발간횟수 줄여야 응답 57%

학내 정보습득에 크게 도움준다 17%

『제주대소식』지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상당수의 교직원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제주대소식』지 발행주기를 현재의 격주간에서 월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기획담당관실(담당관 김인근)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주대 소식지’에 대한 의견조사’를 우리대학 전교직원 8백명(전임교원 3백47명 조교 90명 일반직원 3백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소식지 발행주기,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중 가장 유익하고 관심있게 읽어 보는 내용 등 모두14개 항목으로 된 설문지(8백부 배부)중 회수된 2백57부를 분석함으로써 조사된 것이다.

▲소식지 발행주기에 대해서는 항목에서 △월1회 57%(114명) △월2회 35%(89명) △매주마다 1회 5.6%(13명)

법식’이 △5개대학 동아리 연합회회장 인사 △역대 제총협 의장 소개 및 축사 △문예단 공연 △총물 관공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제9기 제총협 의장 오지근(한라전문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장) 학우는 결의문을 통해 “7천5백 동아리인의 결의를 모아 조국통일을 앞당길 것”을 다짐했다.

‘뉴미디어...’ 주제 강창언교수 강연

전자공학과(학과장 이광만 부교수)에서는 지난 10일 공과대 세미나실에서 ‘뉴미디어와 정보화사회’라는 주제로 강창언(연세대)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오픈하우스’개최 20일 기숙사서

학생기숙사(사감장 현진오 수학교육과 교수)에서는 오는 5월20일 10시부터 ‘백록사 오픈 하우스(Open House)’를 개최한다.



신임연구소장 임명

신설되는 인문학연구소 초대소장에 김희열(국어국문학과)교수가, 체육과학연구소장에 이상용(체육학과)교수가 지난 5월1일자로 각각 임명됐다. ▲김희열(국어국문학과)교수 △제주출생(53)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76)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89) △제주대학교 전임강사(8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90) △교과과정위원회 위원(92) △외국어교육과 운영위원(93) △인문대 교무과장(94) △교수승진(95).

▲이상용(체육학과)교수 △제주출생(46) △공주사범대학 체육학과(69)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71) △제주대학교 전임강사(75)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과장(82) △체육관장(85) △교수승진(89) △학생기숙사 사감장(92).

교수동정

▲최규일(국어교육과)교수=오는 5월25·26일 양일간,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열리는 한국학 국제학술 회의에 참석해 “국어사전 뜻풀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 예정.

▲이혜선(의류학과)교수=지난 5월13일 서울 성신여대에서 한국복식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장원석(국민윤리교육과)부교수=지난 5월12일부터 14일까지 한림대학교에서 인턴론

터엔탈호텔에서 ‘21세기 한국을 위한 이념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

▲현완송(영어교육과)교수=지난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영어사학회 주최로 서울의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영어사학회 봄 연구회에 참석.

▲김일환(전기공학과)교수=지난 5월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43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 ‘교육 가족상’ 수상.

이명환 박사 강연

에너지공학과

에너지공학과(학과장 조경호 부교수)에서는 오는 19일 공과대 세미나실에서 ‘감마선 분광검출기의 반응 함수특성’이라

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사로 초청된 이명환(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환경관리센터)박사는 강연을 통해 검출기로 계속된 Data를 통하여 감마선 분광투영과 표준선원을 이용한 응답 함수식의 적용에 대해 강연한다.

최병오 교수 강연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학과장 김귀식 교수)에서는 지난 12일 공과대 세미나실에서 ‘로봇의 접촉력 제어’라는 주제로 최병오(한국기계연구원)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고일두 교수 강연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학과장 서일교 전임강사)에서는 지난 17일 백두관 2층 시청각실에서 ‘건축CAD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고일두(서울산업대)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본교 외산담배 흡연율 8% 달해

담배인삼공사 소비실태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흡연성향과 대학 내 외산담배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우들의 외산담배 흡연율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역본부(제주지점장 오치범)에서 지난 4월24일 우리대학교 8개 단과대학 주변 풍초를 수거 분석한 결과 집계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총수거량 1

천76개비중 △국산담배=9백90개비(92.0%) △외산담배=86개비(8.0%)로 나타나 대학 내에 외산담배를 전혀 판매하지 않는데도 8%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담배 소비량은 품목별로 보면 △말보로(44.2%)와 △마일드세븐(39.5%)이 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기타 외산담배는(6.3%)만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라·我羅

아라가요제

이제부터 계기로!

우리대학 발전을 위해 해외에서도 동참한다는 소식이 들려 반갑기 그지 없구나.

지난 11일 도내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고강권총장과 이근보 발전추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방문단이 일본에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일 제주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이번 일본방문단을 계기로 대학발전기금조성 참여인사가 더욱 확대되고 기금조성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오.

○“뜻대있는 행진”

국제교류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예정인 ‘국제학술교류부’가 평의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데 대해 학내에선 실망스러.

당국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왜 국제교류부 신설안이 보류되었는지 직시해야 할듯.

예컨대 과연 우리대학내 한 부서가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할 만큼 그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 말이오.

○...사랑의 손수건.

농아복지회관 건립 마련을 위해 ‘손수건·팔기 운동’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려 알아보니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이제부터 계기로!

열리는 대중제 기간 중 경상대 학생회에서 벌이는 운동이라고.

이제까지 먹고 마시는 일이 주류를 이루던 대중제 기간에 이런 뜻깊은 행사가 개최된다는 다른 학우들도 많은 관심 바라오.

○...설문조사 질문지 작성법부터 배우시죠?

지난 3월중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제주대소식』지에 관한 설문지 조

사 내용 중에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주대소식』은 사실적이고 확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학내 공보지로서 대학실상을 사료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학내의 다른 매체(제대신문 등)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라는 항목.

질문 자체에 어떤 의도를 풍기는 이런 설문지, 도대체 작성하신 분은 설문조사 질문지 작성법이라도 제대로 알고 계신지 궁금할 뿐.

○...실종된 대학인의 의식.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우리대학 캠퍼스에 버려진 풍초들을 수거해 품종별 담배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산담배 흡연율이 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 매점에도 팔지 않는 말보로·마일드세븐 등의 외산담배가 교내 주변에서 활발하다는 말인데.

“수입개방 반대”를 외치던 우리 대학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오?

신규 시스템도입에 따른 이용 안내

전자계산소에서는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이용시간 : 평일 09:10~17:50 / 토요일 09:10~12:50
- 이용대상 : 교직원
- 이용방법 : 각 시스템별 필요한 자료 지참 이용
- 시스템설치장소 : 전자계산소 시스템연구부
- 이용시스템

시스템명	사 양	용 도	필요한 재료
Slide Film Recorder	33bit color/Gray Scale recording Cycle: 60Sec	Slide 촬영기	• Film
현상기	Max Film Size: 4×5" Max 인화 Size: 20×20cm	Slide Film 현상기	
Pentium IBM P60/D	Pentium 60MHz Memory 32MB HDD 540MB FDD 5.25", 3.5" Multi Media: CD-ROM Drive		• diskettes
Stylus Color Printer	해상도 : 300~720DPI 용지 : A4, B5	컬러 프린터	• 컬러프린터 용지 • OHP에 필요한 자료 프린트 • Transparency Film
OCR program	그림(선도형)과 자동분리 인식 명조해, 고해제 인식 인식을 97% 인식속도 25~30자/초	한글인식 프로그램	• 인식시키고자하는 자료
Color Page II (scanner)	해상도 : 300~2400DPI A4사이즈까지 스캔가능	컬러스캔	• 스캔시키고자하는 자료

제주대학교 전자계산소장

운 전 한라자동차학원

▲아리동, 제주대 통학로에 위치 / 편리한 교통

▲빠르고 친절한 운전교습

▲필기시험 강의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동쪽)

☎ 55-9900 56-7755

일본유학

아까몽카이

연 4회 모집 (1, 4, 7, 10월 학기)

정원 962명, (現在 한국인 재학생 700명) 한국인 졸업생만 2,300여명을 배출, 대학(원) 및 전문학교의 높은 진학률과 1급 및 2급 능력시험의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AKAMONKAI에서 장기, 단기과정의 학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95년 10월학기 장기과정모집 (제1교)

• 자 격 : 고졸이상 (남·여) • 과 정 : 6개월~2년 • 입교일 : 95. 10. 4. • 마 감 : 95. 5. 25.	• 장학금지급 : 기숙사준비(남·여) • 단기과정 : 3월내(수시접수) 여름·겨울 방학 6주·8주코스 환영
--	--

- 우수 국·공립대학 높은 합격률
- 대학(원) 진학지도(아까몽카이 일본어학교는 대학 및 전문대진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학교)
- 전문대 진학지도(아까몽카이 일본어학교 6개월 이상 수학생에는 일본어 능력시험 없이 학교추천으로 전문대 입교가능)
- 일본유학을 성공한 선배들이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 일본법무성 산하 한·일문화협회 회원교로 장학금 지원

제주사무소(AMK 해외교육개발원) 접수중

제주시 연동 301-10 ☎ 44-3377 FAX, 44-7155

赤門會日本語學校 第一校 第二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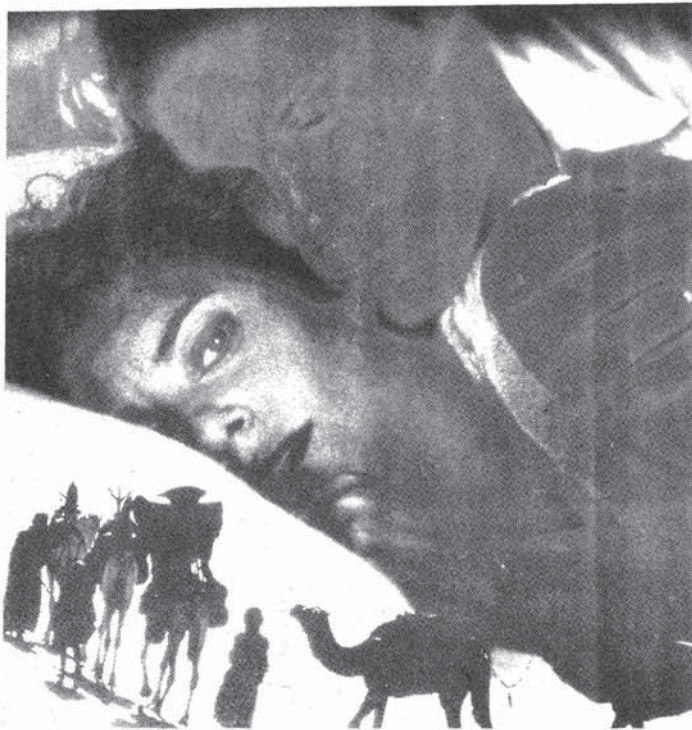
AKAMONKAI JAPANESE LANGUAGE SCHOOL

東京都荒川区東日暮里 6-52-7 東京線 15分(電鉄)

영화평

마지막 사랑(원제: Sheltering Sky)

새로움 향한 여정의 실패 인정한 베르톨루치의 자학



◇베르톨루치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새로움을 찾아 떠난 예술여행에서 예술가로서의 자각만 남겼다.

1. 시작하며

불이 꺼진다. 영상기에서 내뿜는 빛이 하얀 영상막을 덮는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영화는 낡은 흑백 다큐 필름으로 시작한다.

왜 베르톨루치 감독은 다큐필름

을 제시해야만 했을까?
작가 자신이 네오 리얼리즘(Neo-Realism)에 대한 노스탤지어나 극적(劇的) 사실 효과를 위해 서인가? 아니면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찾아간다는 상징일까?
이 영화는 헐리우드 대작본으로

완성된 〈마지막 황제(86)〉 다음에 만들어진 90년대 작품이다.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며 그는 “헐리우드는 흡사 두 개의 껍질과 같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더듬으며 이제 그 해답을 찾기로 하자.

2. 빛의 미학, 치밀한 배경 설정을 통한 상징

성(性)은 빛에 의한 색으로 표현된다. 전반부에 카메라는 ‘포트’와 ‘킷’의 침실로 분리해서 찍으면서, 한 쪽 방에는 붉은 톤으로, 다른 쪽에는 차가운 톤으로 대치시킨다. 그리고 ‘터너’(자본가)는 ‘킷’과 ‘포트’(예술가)의 방을 파란, 빨간 장을 통해 번갈아 보고 있다. 이 장면에서, 부르조아에 대한 순응적 삶과 그것에 대항하는 삶의 갈등을 자본가의 시각을 빌어서 제시하고 있다.

여행도중에 본 장례의식, ‘포트’가 여행중 묵었던 방안에 새겨진 십자가, 계단에 쌓이는 모래, 바람을 막으려고 걸었던 ‘킷’의 옷이 찢기는 화면, 그리고 음침한 자연영상을 제시함으로써 ‘포트’에 대한 지켜온 죽음의 암시는 끝난다. 보름달같은 유방을 지닌 장녀에게 유혹되는 ‘포트’와 ‘터너’의 삼패인에 몸을 내던지는 ‘킷’의 행동

은 ‘포트’에게는 자아분열에 대한 탈출구로서의 탐닉을, ‘킷’에게는 자본에 대한 순응을 보여준다. 그러나 ‘킷’이 유목민과의 여정에서, 보름달이 그림자로 변화하는 장면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탐닉, 즉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말한 베르톨루치 감독이 자신의 말에 대한 부연설명인 동시에, 이후 ‘킷’이 탐닉한 자본의 순응을 뿌리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끝으로 ‘포트’가 꿈꾸는 장면과 ‘킷’이 유목민 부족장의 방으로 가는 장면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카메라기법(handheld cam-

era)과 카메라가 배우의 시각이 되는 시점화면(point-of-view shot)을 보여준다. 여기서, 자아분열에 빠진 ‘포트’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킷’) 도착미와 유희하려는 ‘킷’(새로운 곳에서 예술혼을 융화시키려는)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동일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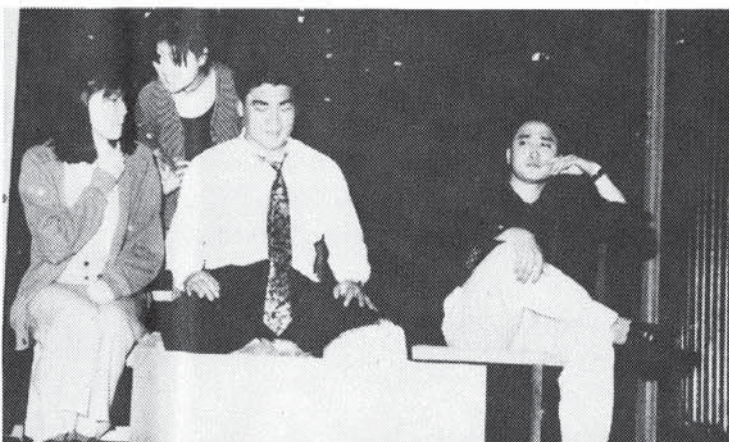
3. 마치며

이제 새로움을 향한 여정은 끝났다. ‘킷’(예술가)은 ‘터너’(자본가)를 뒤로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그러나 변한 건 없다. 심지어 피가로(pigaro) 신문은 파는 그 소년까지도... 다만, 자신을 사랑한 ‘포트’ 예술에 대한 자기고통만이 없을 뿐이다. 바로 자본가와 동행했던 새로운 예술여행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자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고선희 중문 4)

◇극연 ‘불 좀...’ 연습현장을 찾아

인간의 이중성 형상화 위해 ‘구슬땀’도 마다하지 않아



◇연극 ‘불 좀...’은 인간내면의 본성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풀어가는 특이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극예술연구회 첫 리허설 모습)

‘속 모습의 나’인 본성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풀어가는 특이한 기법으로 구성된 극예술연구회(회장 오상운 관정 2)의 ‘불 좀...’은 ‘이만희 작’의 공연연습현장을 보기 위해 법정대 중강당을 찾았다.

7명의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이 무대에 한 줄로 서서 발성연습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조명을 매만지거나 동료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 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연극연습을 하기 전에 항상 갖는 발성연습 후 회원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무대에 관객이 앉아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연기나 스텝진 모두가 진지한 모습이었다.

강한별(물리 2)연출, 김석기(관정 4)기획의 ‘불 좀...’은 지난 3월 초순부터 2달여에 걸쳐 연습기간을 갖고 5월 16일 첫 리허

설을 가졌다. 작품의 줄거리를 보면 젊은 시절 연선생과 과수원 잡역꾼으로 만나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재회하여 과거를 회상하며 왜 헤어지게 됐는지 그후 누구와 결혼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형식면에서 남자와 여자 이외에 남자의 본성과 여자의 본성을 통해 그들의 속마음과 원시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이채롭다.

연극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 작품은 현재 서울에서 장기간 공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업적인다는 평도 듣고 있다.

대학생에 알맞도록 각색한 연출자 강한별씨는 “인간내면 이중성이 있다는 면을 부각시켜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 있어서 이 작품을 선정했

동문발언대 『제대연보』를 보고

각종 통계자료 오류 많아 정확한 현황을 똑바로 제시해야



허태현

오늘의 대학 실상을 알리고 파악하는 데는 현황을 수치로 나타내는 수밖에 달리 적절한 방법이 없다.

그 수치가 과장·축소되거나 틀리면 실상이 왜곡돼 실제과에 오류를 범하게 된다. 제주대학교가 간행한 『제대대학교연보』는 내용 거의가 수치

와 통계로 대학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이치에 맞지 않게 기록된 게 많아 보는 이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지난 91년에 간행된 대학연보에는 시설현황에 8개 단과대학 강의실 기준면적은 1만4천5백55㎡, 보유면적은 1만5천5백24㎡로 시설면적이 기준면적을 1천69㎡나 초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94년판 간행본에는 강의실 전체 기준면적이 9천8백㎡에 보유면적은 8천9백22㎡로 3년 사이에 시설이 더 확충되지 않고 오히려 기준면적 4천7백55㎡(32.7%)와 보유면적 6천7백2㎡(43%)가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시설보유면적이 공과대와 교양공통은 지난 91년에 1천5백97㎡와 6천2백89㎡였던 게 작년에는 4백5㎡와 2천2백46㎡로 공대는 75%, 교양은 64%나 시설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사범대는 강의실이 1천1백4㎡에서 5백50㎡로 50%, 경상대도 1천4백99㎡에서 8백93㎡로 40%나 축소됐다.

그뿐이 아니다.

실험실도 지난 91년 간행본에는 8개 단과대학 기준면적과 보유면적이 2만8천1백96㎡와 2만1천6백49㎡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작년 간행본에는 시설기준면적과 보유면적이 1만8천5백82㎡와 1만7천87㎡로 3년 사이에 기준면적은 9천6백14㎡(34%), 보유면적도 4천5백62㎡(21%)나 축소돼 있다. 특히 인문대 실험실은 보유면적이 91년 1천6백48㎡에서 작년에는 4백38㎡로 무려 73%나 줄어들었고 해양학과와 자연과학대도 보유면적이 39%와 33% 축소돼 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 시설투자를 못하고 강의·실험실을 철거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3년 사이에 이처럼 대학시설이 증발될 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대학이 질적·양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강의실과 실험실 기준·보유면적이 확장되면 확장되었지, 축소될 리는 없는 일 아닌가?

대학이 간행하는 대학연보는 오늘의 총체적 대학 현황이요 실상이다.

따라서 대학연보는 오늘의 대학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대학의 발전취를 후세에 전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처럼 소중한 대학사료를 간행함에 있어 시설현황을 재검증도 없이 이치에 맞지 않게 기록한 것은 해당부서의 무성의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듣건대, 오는 7월에는 95년판 대학연보가 출간될 예정이라는 데 다시한번 시설현황에 대한 수치를 검증할 것을 바랄 뿐이다.

(국문·출·한국일보전국부장)

인터뷰 기성회직원 노조위원장 오경숙씨

“공동임금협상 성공적으로 이끌기위해 최선을 다할터”

지난 4월27일 기성회직원노조위원장에 피선된 오경숙(자연대 행정실근무)씨를 만나보았다.

▲취임소감은?

=임금협상, 단체협약이 계속해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맡게돼 책임이 무겁다. 조합활동이 간부중심으로 이뤄지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힘입어 지금 진행중인 단체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쓰겠다.

▲독자적으로 해오던 협상을 7개 대학과 공동으로 하게 된 동기는?

=지난 1월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대학 노동조합연맹 국립대학위원회 회의에서 임금협상을 공동안으로 요구하자는 협약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대학교를 비롯해 서울대·전남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노조가 체결하는 근무상황, 보수현황이 비슷한 실정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결정됐다.



▲공동임금요구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신분보장, 조합원활동보장, 차별임금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기성회계가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성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이 우선적인 감원대상이 되고 있어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기성회노조총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학교측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서는 차별이 많아 기본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계속 결렬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침인가?

=지난 5월10일 이후로 매일 12시부터 야외발표관에서 성공적 협상타결을 다짐하고 학교측에 협상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또한 15일 2차협상이 결렬되자 ‘총장은 단체교섭에 즉각 성실히 임하라’는 리본을 다는 한편,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는 19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3차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엔 곧바로 비상임시총회를 소집해 정책발생신고와 동시에 10일간의 병가기간을 갖고 6월초부터는 파업여부를 논의해 된다.

▲조합원과 학교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3년동안 정식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이번 열리는 3차협상에 학교측에서 꼭 임해주기 바란다. 또한 80여명의 조합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인 만큼 하나가 되어 이번 임금협상에 힘을 합쳐줬으면 한다. (한)

◆姜通源 紀行詩集 1 歐美 편

詩의 旅路



세계 여로의 異國情調
詩로 그린
자연과 역사와 문화
都市와 인간
그리고 그 삶의 風俗圖

백산출판사/4천5백원

18세기의 예언자



문혜경·박찬문
이남철·한기영
민족문화추진회
공역

18세기의 예언자들은 비록 이론의 영역에서도 그들 배후에 어떠한 운동을 가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속에 많은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의 본질적인 이념에서 특별히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광범위한 지적운동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거의 독립된 사상가들이었다. 〈편역자 서문 중에서〉

- 산업의 미래 / 생시몽
- 공동체 생활인의 꿈 / 푸리에
- 사회의 원리 / 윌리엄 고드윈
- 새로운 사회관 / 로버트 오웬
- 돈의 고안 / W.바이틀링
- 정전론 / 장악몽

정음사 펴냄 / 값 10,000원

■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 시인론



김병택 지음
국학자료원 펴냄
331면/값 8,000원

제1부 詩人論

- 李相和詩의 意蘊과 그 意味 / 萬海詩에 나타난 夢의 性格과 展開樣相 / 黃錫禹의 詩論攷 / 白石詩의 特質에 관한 考察 / 李庸岳詩의 敘事와 抒情 / 尹東柱의 意蘊과 그 意味 / 朴寅煥詩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受容과 時代認識

제2부 文學과 社會論

- 韓國浪漫主義의 背景과 性格 / 1920年代 詩論攷 / 프로文學論 / 現代文學理論의 發生과 性格 / 文學과 社會

제3부 地域文學論

- 地域文學의 存在方式와 그 展望 / 邊方의 自然과 삶 / 體驗의 意匠 / 삶 또는 悲劇의 情緒 / 노래하는 詩의 抒情的 自然

빛/남/시/선/55

김용길 제4시집

서귀포 서정별곡



물의 끝 바다에는 버려지는 섬들이 있다.
섬은 외롭게 떠 다닌다.
버려짐으로 해서 더욱 외롭고 슬픈 섬들...
그런 섬을 찾아 바다로 배를 띄운다.
매로 고통의 칼날을 맞으면서 숙명적으로 맞서는 섬, 섬의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면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변(代辯)하는 심연적(心言的)인 것이어야 한다. 나의 섬의 은유(隱喻)는 여기에 있다.
—自作評辭에서

도서출판 빛남 펴냄/139면/값 3,500원